

오존寶庫 아마존雨林물살

최근 몇년새 나타난 「溫室효과」로 지구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산소의 10%를 공급하며 지구의 허파구실을 해온 인류最古의 밀림인 브라질 아마존 雨林의 개발이 국제문제화되고 있다.

브라질정부는 농민에 토지분배와 목축산업장려·발전조건설등을 위해 세계은행등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얻어 원시림인 아마존 雨林을 개발하고 있으나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환경보호론자들과 이미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美國등 선진국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것.

지구상의 雨林지역은 西南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 아마존등 3개지역 총9백만km²로 인류가 숨쉬는데 필요한 산소의 30%를 공급한다. 아마존우림을 비롯한 브라질의 山林은 이가운데 5백만km²로 브라질 영토의 60%를 차지하며 세계산소의 10%를 공급한다. 최근 수십년간 이상기후로 아프리카와 美洲지역의 사막이 확대되고 선진국의 산업으로 공기가 탁해지며 태양열을 차단해 주는 오존층이 파괴되기 시작해 공기와 산소문제가 인류의 큰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브라질은 64년 군사정권시대 부터 1천4백만 농민들의 토지 요구에 대한 정책으로 대지주의 땅을 나눠주는 대신 아마존우림을 개발해 경작토록 했고 85년 「사르네이」 민간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이정책을 계속하고 있으며 외화를 벌기위해 이곳에 목축을 장려하고 있다. 농민들은 이 雨林을 경작지로 바꾸기 위해 목축업자들은 초지를 조성하기 위해 쉬운 방법으로 불을 놓고 또한 수액을 쉽게 채취하기 위해 고무나무가지에 불을 놓는다. 이때문에 아마존 우림지대에선 87년 한해만도 17만건의 방화및 산불이 일어나 18만km²를 태웠고 지난해에도 하루평균 5천건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이같이 불태워진 雨林면적은 60만km²로 브라질 전체산림의 12%나 된다. 브라질 정부는 이곳에 대규모 댐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이같은 추세라면 멀지않아 아마존우림을 완전히 소실돼 지구, 특히 美대륙에서 산소부족 사태가 날것으로 환경보호론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中央日報. 89.1.11)

德裕山 스키장 올해착수 91년 개장

德裕山체육시설 및 종합휴양지 개발사업이 올 하반기

기에 착수된다. 덕유산체육시설및 종합휴양지 개발사업은 지난해 9월까지 쌍방울 개발에 의해 기본설계가 마쳐진 상태이고 지난해 12월 28일 공원위원회가 덕유산 국립공원 재정비계획에 스키장을 반영시킴으로써 사업 추진이 활발해졌다. 한편 이 종합휴양지에는 스키장을 비롯, 골프장, 주제공원, 숙박시설등이 갖추어 진다. (中央日報. 89.1.11)

太白山 도립공원지정

—太白市 所道洞일대 17.44km²—

강원도는 지난 1월19일 建設部の 승인을 거쳐 태백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했다. 도는 지난해 5월태백탄전지대 주민의 휴식공간제공과 대체산업 개발 차원에서 태백산 일대 20km²를 도립공원으로 지정승인해 줄것을 건설부에 신청했으나 산림청의 반대에 부딪쳐 2.5km²축소후 재신청을 하였다. 태백산은 국토의 척추격인 태백산맥의 主山으로 장군봉, 당골계곡등 수려한 경관과 천제단, 망경사, 백담사, 유일사등 많은 문화자원을 갖고있다.

강원도는 太白山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하여 9월부터 6억원의 사업비로 집단시설지구 2개소에 대한 토지매입과 기반시설공사를 착수키로 했다. (江原日報. 89.1.19)

智異山 식물744종, 포유류39종 서식

國立公園1호인 지리산에는 744종류의 식물, 39종의 포유류, 9종의 양서류, 12종의 파충류가 환경청 자연생태계 조사반에 의해 관찰 또는 채집되었다. 이에따라 지리산 심원계곡, 노고단및 반야봉 일대를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환경청이 지난해 7월22일 부터 8월12일에 걸쳐 지리산 반야봉 일대를 중심으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을 위해 자연생태계 조사작업을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이번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식물상은 총744종류로 나타났고 이중 智異山의 고유식물은 총83종류로 드러났고 구상나무, 지리대사초, 금강애기나리, 지리바꽃, 모레미풀, 히어리, 큰용담, 매미꽃등의 특기식물이 밝혀졌다. 지리산은 6.25로 방화와 벌채가 극심했고 최근에는 도로의 신설및 확장등으로 자연식생이 점점 파괴돼가고 있으나 다행히 피아골과 심원골의 일부에서 보존돼 온것으로 확인돼 이 지역의 자연생

대계 보전지역 지정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光州日報, 89.1.30)

漢江에 철새 보금자리 마련

서울시는 한강을 찾아드는 철새들의 서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작대교 남단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 3천평에 먹이식물을 심기로 했다. 4월부터 8월까지 심게될 먹이식물은 보리, 메밀, 콩, 조, 피등으로 수확물을 거두지 않은 채 새들의 먹이로 제공하게 된다. 한편 이 부근에 망원경으로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탐조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UNEP 각국환경當局에 대책호소—

UNEP(유엔환경계획)은 89년 한해동안 수년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지구기온 상승에 대해 전인류에게 경고하고 이의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UNEP는 금년에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Global Warning)라고 전인류에게 경고하고 각국의 환경당국이 이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유엔환경계획이 이같이 온실효과 등으로 지구온도가 상승되고 있는데 대해 경고하고 나선 것은 온도상승에 따른 남·북극의 빙하가 녹아 해면상승으로 지구에 큰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기름, 연탄등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으로 발생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외곽에 층을 이루고 지구복사열의 대기확산을 막음으로써 지구온도가 상승되고 있다고 주장, 오존층파괴와 함께 이같은 온실효과가 지구인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다고 경고 각국이 대책마련에 서둘러 줄 것을 호소해 왔다. (한국환경신보, 89.1.30)

花郎世紀 필사본 발견

—三國史記보다 4백40년 앞서—

이름으로만 전해오던 신라의 옛책 「花郎世紀필사본」이 釜山에서 발견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釜山시 甘川洞 金敬淑씨(39)가 소장해오다 관계학자들의 감정을 받아 16일 공개한 花郎世紀는 新羅 聖德王때의 문장가 金大問이 저술한 책으로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랜 史書인 三國史記(1145년 편찬)보다 4백40여년 앞서며 신라화랑에 관한 모든 내용을 기록했다.

이 필사본은 朝鮮 후기 純祖재위기간(1801~1834)에 베껴 쓴 것이나 三國史記속의 花郎世紀 인용부분(16字)이 그대로 실려 있고 地名, 人名, 著者の 家系, 연대구성상 위작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丁仲煥박사(전·동아대교수)등에 의해 밝혀졌다. 丁박사는 花郎世紀母本을 충실히 베낀 것으로 보이며 비록 필사본이라 할지라도 국보급으로 정해야 할 가치가 있는 귀중한 사료라고 말하고 「書誌學·史學·漢文學등 각분야의 전문가들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필사본에 따르면 화랑제도에도 伽椰派·美空派·二花派등으로 나누어져 파벌싸움이 심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또한 혼인제도의 경우 수많은 근친혼과 私通, 동성애, 일부다처 및 일처다부형등 특이한 혼인양상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다. (中央日報, 89.2.17)

地球온실효과 방지되면

동식물 하루 50種 멸종

지구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온실효과」가 이대로 방치될 경우 향후 30년간 지구상에서는 하루평균 50 종씩의 동식물이 멸종하게 될 것이라고 오스트리아에 본부를 둔 민간연구단체 「국제응용체계분석연구소(IIASA)」가 경고했다. 이 연구소의 부소장 「보 두스」 교수는 「현재와 같은 속도로 온실효과가 지속될 경우 지구상의 온도는 향후 50년간 평균 1.5~3℃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그 결과 오는 90년에서 2020년에 이르는 30년간 지구상에서는 매일 50여종의 동식물이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스 교수는 또 「이미 지구상에서는 기온상승과 해수면 상승 등 온실효과에 따른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즉시 전지구적 차원에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 더럼대의 환경연구소는 4월 12일 지구상의 온실효과로 인해 바닷물의 수위가 앞으로 5m 정도 높아져 런던을 비롯한 대도시들이 침수될 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 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오는 2030년 까지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를 전망이며 이에 따라 해수면이 현재보다 5m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일보, 89.4.14)

木材서 알코올 개발

—林業研究院 崔惇虞연구팀 발견—

목재에서 알코올을 뽑는다.

山林廳 林業研究院 미생물화학연구실은 지난 80년

부터 「木質纖維素의 高效率 에탄올 생산菌株개발에 관한 연구」에 착수, 목재에서 燒酒의 酒精인 에탄올을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林産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알코올등 대체에너지 개발은 전국토의 2/3가 산지이면서도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2천년대 에너지 위기에 대비,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목재에서 알코올을 뽑는 생산과정은 목질자원을 분쇄한 木粉을 加水分解시켜 糖化된 木糖을 발효, 에탄올을 생산해 낸다. 목재를 구성하고 있는 천연高分子섬유소 가운데 50%가 넘는 셀룰로오스를 분해 동물이나 미생물들이 섭취할 수 있는 포도당을 얻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崔연구사는 식물의 光合成작용으로 매년 새로이 생성되는 바이오매스자원은 무진장한 만큼 발효능이 높은 새菌株개발이 이루어지는 2천년대에는 우리나라도 자원의 부국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89.4.2)

紅島희귀수목 枯死

—가뭄으로 구슬나무등 4萬그루—

천연기념물 제170호로 지정된 新安郡 흑산면, 紅島의 희귀수목이 계속된 가뭄으로 말라 죽어가고 있다.

희귀수형 소나무를 비롯 구슬나무, 잣나무, 후박나무등 628ha에 분포돼 있는 희귀수목은 지난해 11월 개 부터 가뭄으로 말라죽기 시작 최근 전체임야의 8%인 51ha 4만8백여 그루가 고사했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新安군은 全南도 임업시험장 관계자와 함께 현지확인에 나선결과 죽어버린 수목에 병충해 부분이 없어 극심한 가뭄으로 고사한 것으로 판명됐다. (光州日報. 89.4.22)

自然生態系 全國조사 4월부터 속개

—동식물분포 파악, 자연보호에 만전—

86년부터 실시해온 자연생태계 전국조사가 올해는 4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다. 全國土를 대상으로 생물의 생육환경 動·植物의 分布상황, 자연의 보호상태 등을 파악하여 자연생태계 보전대책과 자연자원의 효율적 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5개년 계획으로 실시하는 본 조사는 전국을 유지, 하천 및 호소, 연안해역으로 나누어 동·식물의 分布와 서식밀도, 식생회귀 및 멸종위기생물, 지형, 토질등에 대해 연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90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올해에도 지난해

와 같이 江原, 全南, 京畿에 대한 植物 및 토양분야의 조사를 계속함과 동시에 動物분야(포유류, 양서, 파충류, 곤충류)에 대해서도 京畿, 江原, 忠北, 忠南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청 特定야생 動·植物 92종 지정

—植物59, 곤충21, 파충류92종등—

환경청은 3월8일 날로 희귀해지거나 멸종위기를 맞고있는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양서·파충류 12종, 곤충류 21종, 식물 59종등 총 92종을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따라 특정 야생동·식물로 지정, 고시했다.

특정 야생동·식물에는 파충류의 남생이(멸종위기종) 능구렁이(감소추세종), 양서류의 금개구리(특산종), 곤충의 붉은점모시나비(멸종위기종), 비단벌레(희귀종), 식물의 솜다리(일명 에델바이스·희귀종) 풍란(멸종위기종)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 동·식물은 앞으로 채취 포획 보관 가공및 수출이 규제되며 위반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또한 현재 이들 특정야생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여 인공재배 및 양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3개월이내에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환경청은 국제적인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구 지역(釜山직할시 명지동, 신평동, 장림동, 다대동) 34.2km²를 생태계 보전구역으로 지정, 각종개발행위및 야생동·식물의 포획, 채취를 금지 시켰다.

이번에 고시된 특정야생동·식물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양서류(5종)

▲두꺼비 ▲물두꺼비 ▲맹꽁이 ▲금개구리 ▲꼬리치레도롱뇽

◇파충류(7종)

▲남생이 ▲도마뱀 ▲구렁이 ▲능구렁이 ▲실뱀 ▲대륙우혈목이 ▲까치살모사

◇곤충류(21종)

▲붉은점모시나비 ▲대왕팔랑나비 ▲큰홍띠점박이 푸른부전나비 ▲상제나비 ▲물결부전나비 ▲신부나비 ▲쌍꼬리부전나비 ▲깊은산부전나비 ▲유리창나비 ▲어리세줄나비 ▲산굴뚝나비 ▲반날개하늘소 ▲범하늘소 ▲알락수염산꽃하늘소 ▲알락수염하늘소 ▲우단하늘소 ▲큰풍뎡이 ▲장수풍뎡이 ▲사슴풍뎡이 ▲툭사슴벌레 ▲비단벌레

◇식물류(59종)

- ▲솔잎단 ▲설악눈주목 ▲섬천남성 ▲섬남성 ▲금강애기나리 ▲큰영연초 ▲솔나리 ▲섬말나리 ▲층층등글레 ▲개상사화 ▲백양꽃 ▲흰등심붓꽃 ▲흰각시붓꽃 ▲대청부채 ▲부채붓꽃 ▲난장이붓꽃 ▲노랑무늬붓꽃 ▲천마 ▲흑난초 ▲풍란 ▲나도풍란 ▲백은란 ▲사철란 ▲여름새우란 ▲새우난초 ▲금새우란 ▲약난초 ▲광릉요강꽃 ▲삼백초 ▲노란팽나무 ▲개죽도리 ▲가시연꽃 ▲지이바꽃 ▲노랑들찌기 ▲만주바람꽃 ▲모데미풀 ▲한계령풀 ▲갈퀴현호색 ▲난장이현호색 ▲점현호색 ▲고추냉이 ▲끈끈이귀이개 ▲끈끈이주걱 ▲왕자귀나무 ▲시로미 ▲먹년출 ▲황근 ▲왕제비꽃 ▲금강제비꽃 ▲땃두릅나무 ▲등대시호 ▲암매 ▲홍월굴 ▲만리화 ▲산개나리 ▲구름송이풀 ▲금강초롱꽃 ▲솜다리 ▲갯취

日政府, 地球 환경문제 對處
環境保護基金 1천억円 무상 供與

日本정부는 오는 7월 파리근교에서 열리는 선진7개국 정상회담에서 지구의 환경문제 대처하기 위해 1천억円정도의 정부개발원조(ODA)자금을 무상공여할 용의가 있음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日本은 온실효과와 열대우림 보호대책으로 Green Fund의 창설, 酸性가스의 제거기술개발을 위한 선진국간 협력등 구체적인 환경보호대책을 마련, 제출할 예정이다. 日本이 공여할 1천억円의 정부개발 원조자금은 주로 태양열발전 플랜트등 새로운 에너지개발과 공해방지 시설 구입을 위해 쓰여지게 된다. 日本은 이 자금의 공여를 통해 경제대국으로서 환경문제에 적극 공헌하고 있음을 과시할 목적을 갖고 있다. 이밖에도 熱帶雨林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국제열대목재기구(ITTO)에 그린펀드를 창설 매년 2천만 달러를 출연한다. 또한 지난해 필리핀의 식목계획에 이어 인도네시아, 인도, 中國등 국가의 식목프로젝트에 대해서도 円차관을 공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国内에도 긴잎 쇠물푸레나무발견

환경청은 4월25일 慶南 山淸郡 智異山 국립공원 쉼터. 8백m 지점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쇠물푸레나무의 變種인 긴잎쇠물푸레 나무가 자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청이 지난 86년도부터 전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연생태계 전국조사중 3차연도인 지난해 식물분야 조사결과 밝혀졌다. 긴잎쇠물푸레나무의 자생을 첫확인한 慶尙大 金三植 교수(임학과)는 자신의 성을 붙여 「Fraxinus Sieboldiana Var. Longifolia Kim」으로命名했다.

쇠물푸레나무는 높이10m 내외의 활엽수로 잎은 넓은 바늘형, 또는 긴달걀 형이며 5월에 흰꽃이피는데 주로 황해도 이남지역에 분포하는데 긴잎쇠물푸레나무의 잎은 쇠물푸레나무의 잎보다 2배 길다 는것.

觀賞魚 애호가 위한
자상한 指針書

月刊 『관상어 · 인테리어』

6月号 創刊

自然과 動物愛護 측면서

金熙度 會員이 꿈을 펴

관상어 전문잡지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관상어와 인테리어를 접목시킨 월간「관상어·인테리어」가 6월호로 창간되었다.

삭막한 都市에서 받는 스트레스 해소책으로 근래 관상어 사육붐이 일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관상어용 水槽가 가슴기로 활용되는데 착안한 주부들이 늘어나면서 관상어는 인테리어 素材로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해 가고 있다.

월간「관상어·인테리어」는 잡지의 특수성 때문에 특히 컬러面이 많아 갖가지의 관상어(열대어·비단잉어·금붕어)들이 원색으로 다채롭게 소개돼 잡지 자체가 하나의 수족관을 보는 느낌인데 실용적인 인테리어 기사들이 곁들여진 새로운 시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50여종의 열대어와 7~8종의 비단잉어, 20여종의 금붕어가 사육되고 있는데 사육·부화법, 어병치료법, 물 관리법, 국내외 정보들이 자상하게 실려있어 약 2백만명으로 추산되는애호가들에겐 반가운 소식.

本會 會員인 발행인 金熙度씨(전신문인)는 「크게 늘어나는 관상어 애호가 가 차츰 학살자가 되는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자연보호·동물애호 측면에서 꼭 해야 할 일을 시작 한것」이라고

시판가격은 2,000원